

미국 텍사스 오스틴 출장 결과

1

개 요

- ☐ (목 적) 미국 텍사스 물관리 기관 대상 기술 마케팅
 - 현지 공공 및 민간 물관리 기관 대상 홍보 및 협력 제안
 - Central - Texas Korea 서밋 참석 및 패널 토론
 - ※ 텍사스주는 테슬라, 오라클, 스페이스X 등 기업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에서 혁신의 산실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물 수요 급증
- ☐ (時 / 所) '26. 8. 24(월)~26(수), 미국 텍사스 오스틴
- ☐ (출장자) 글로벌기술마케팅부장

2

세부 내용

가. 물관리 기관 면담

☐ Integrated Water Service

- ※ 미국 전역에서 폐수처리, 재이용,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을 설계, 시공, 운영하는 물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민간 기업
- 최근 미국 상하수도 시장은 노동력 부족, PFAS, 사이버보안 등이 주요 이슈, 약 70%가 중소규모 및 분산형(decentralized) 마켓
- 물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텍사스는 재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중으로 기회 요인
- 동 사는 기자재 생산, 재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상수도 공급, 운영 관리 등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중으로 사업개발 등 협업 제안

□ Guadalupe-Blanco River Authority (과달루페 블랑코 유역청)

※ 미국 텍사스주 중남부 과달루페강과 블랑코강 유역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1933년 설립된 주정부 산하 수자원 관리기구

- 산업 성장에 따른 물 수요 급증, 한정된 수자원, 제도 강화, 재원 부족 등이 오스틴 지역 물 공급의 주요 이슈
- 오스틴 지역의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십억불(13조원) 규모의 WaterSECURE* 사업 추진중이나 재원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음

* 관로 최대 241km, 정수장 최대 56만m³, 취수장 및 지하수저류지 24개소

- PPP사업 참여시 K-water 역할(단순 지분투자 여부), 시설 잔존가치, 선호하는 투자비 규모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

□ Angelou Economics

※ 투자유치,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, 지역경제 발전 전략 등 해외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수행하는 경제개발 컨설팅 기업

- 텍사스 지역은 데이터센터,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많은 물 수요 발생,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
- 한국의 자본조달비용은 미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투자 유리, 미국 현지 거점 설립 등 제안 및 10백만불 규모 시범사업 추진

□ Lower Colorado River Authority (콜로라도 하류 유역청)

※ 텍사스 중남부를 흐르는 콜로라도강 유역의 수자원과 전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1934년 설립된 주정부 산하 수자원 관리 기구

- 수자원 정책 입안 및 자금조달, 사업시행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, 기존 시설은 매각하여 운영관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정
- 중소규모 사업이 다수로 이윤이 적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40% 예비비도 부족한 상황 등 어려움 많음
- 한국의 물관리 체계 및 자체 홍수분석 모델 유무 등에 대한 관심, AI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물관리에 대한 미국 내 이슈 존재

□ 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(텍사스 수자원개발위원회)

- ※ 텍사스주의 물공급, 수자원 계획, 인프라 투자 및 중장기 물관리 전략 등을 총괄하는 주정부 산하 수자원 정책 및 재정 기관
- 미국 및 텍사스의 경우 물관리는 분산형(decentralized) 시장으로 효율 향상 한계 존재하나, 중소규모 도시에는 효과 有 예상
- 수자원 계획, 사업 시행자 역할을 수행 중으로 추가 수자원 개발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으며, 펀딩 이슈로 인해 PPP 모델 선호

□ Austin Water (오스틴 수도국)

- ※ 텍사스주 오스틴시 정부 산하의 상하수도 관리 기관으로 오스틴시 등 약 100만명 이상에게 상수도 공급, 하수처리, 재이용수 서비스 제공
- 데이터센터 물 사용 관련 청문회 연속 개최, 도시 개발 물수요 등 텍사스 경제발전에서 물 공급이 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
- 재이용, 해수담수 등 대체 수자원을 이용할 계획이며 계량적인 물수요 예측, PPP 사업 추진 등에도 관심 높음
- ※ 물 공급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 기관간 MoU 체결 제안

□ Buda市 경제개발위원회(EDC)

- ※ 오스틴시 인근 Buda시의 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, 산업 인프라 개발 등을 담당하는 경제개발 진흥 기관
- Buda시는 정수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수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돗물 공급중으로 효율적인 관망관리가 중요한 여건
- 시범사업 방식, 누수 탐지 기술, 운영원가 절감 방안 등 스마트 관망 관리(SWNM)에 대한 기술적 사항 논의

□ 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 주관 VIP 오찬

- 오스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한국 최대 투자처로 양국이 가장 혁신적인 협력을 수행하는 도시로 부상
- K-팝, K-뷰티 등에 이어 K-워터 등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/기술이 텍사스 오스틴 지역 및 기업들과 협업 기회 모색중

※ (미국) Kirk Watson 오스틴 시장, Andy Brown 트레비스(Travis) 카운티 대표 및 (한국) 이경은駐휴스턴 총영사 등 약 50명 참석

나. 2026 Central Texas - Korea Summit

□ 행사 개요

- 時 / 所 : 2026. 8. 26(수) 16:00~20:00 / 테일러 월코엑스포센터
- 주 관 : 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 등
- 참석자 : Steve Snell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, 이경은 총영사 등 200명
- 콘텐츠 : 주제 발표, 네트워크 세션, 부스 운영 등

□ 논의 내용

- (미국측) 중부 텍사스 내 약 500개 한국 기업이 활동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핵심, 숙련 인력 부족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 필요
- (한국측)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소부장 진출 본격화중으로, AI, 데이터 성장으로 용수, 전력 등 분야 한-텍사스 협력 제안

□ 세션 내용

- Building a Stronger Texas-Korea Network를 주제로 오스틴 지역과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기관 대표들과 패널 토론 진행

구분	토론 요지
윤준한 부장 (K-water)	- 데이터센터 등 용수 수요 증가와 공급 충격 - 디지털워터솔루션을 통한 물관리 효율 제고 제안
김경훈 소장 (한국무역협회)	- 전력, 용수 확보 필요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대비 - 한국과 미국의 계약 문화 차이 존재
김인배 교수 (가천대학교)	- 텍사스대 등 지역 고등교육기관과 학술/학생 교류 - 반도체 등에 특화된 교육 역량 보유
김중모 부사장 (우리아메리카은행)	- 텍사스 법인세는 없으나 재산세 부담 높음 - 신규 법인은 현지 신용기록 부재로 금융거래 어려움